

신뢰가 깨어짐에 관하여

첫째 답, 둘째 답, 그리고 셋째 답
「서약서」와 「배약 부칙」에 딸린 글 — 열여덟 살 이상의 성인을 위하여

一 이 글이 따로 서는 까닭

「배약 부칙」은 잘못을 이름하고 청산을 정한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일이다 — 깨어진 신뢰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몇 번까지 답하여질 수 있는가, 그리고 부부는 자신들이 무엇을 고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되풀이하고 있을 뿐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하는, 더 어려운 물음이다. 혼육과 신뢰는 같은 주제가 아니다. 수준의 실패는 바로잡으면 된다. 신뢰의 실패는 답하여져야 하며, 두 번째에는 첫 번째와 다르게 답하여져야 한다. 두 번째에 이르러 그것은 더 이상 그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二 첫 번째 배약 — 돌아오는 길은 있다

먼저 자비로운 말부터 하게 하라. 돌아오는 길은 있다. 배신의 발각은 혼인이 품을 수 있는 가장 나쁜 시간 가운데 하나이며, 이 글의 어느 줄도 그렇지 않은 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서약은 한 번의 실패가 함께하는 삶을 끝낸다고 여기지 않는다. 사람이 확실함으로 지어졌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실패는 제도의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 완전한 순종을 전제하는 틀이라면 「규정」도, 청산도, 정지어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 필요한 것은 성인(聖人)뿐인데, 성인은 서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첫 번째 배약에는 답이 있으며, 그 답은 추방이 아니다. 청산이다. 남김없는 고백, 한나절로 끝나지 않는 결과, 봉인, 그리고 소리 내어 다시 읽는 맹세. 이 차례가 내어 주는 것은 바깥 세상이 상처 입은 배우자에게 좀처럼 주지 않는 것이다 — 잘못이 그저 뉘우쳐지는 데 그치지 않고 치러지는 길이요, 혼인이 안에 상처를 품은 채 조용히 이어지는 대신 다시 봉헌되는 길이다.

三 바침

이 값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라. 잘못 읽히기 쉽기 때문이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요, 요금도 아니다. 바침이다 — 참되고, 스스로 짊어지는 무엇이니, 그가 저지른 일이 그로 하여금 입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값을 치르게 하기 위함이다. 사과와 값 싸며, 두 사람 다 그것을 안다. 참된 결과에 불평 없이 몸을 맡기는 남자는, 말로는 믿게 할 수 없는 것을 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깨뜨린 것의 무게를 안다는 것, 그리고 그녀는 고침의 값에 값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침은 무엇보다 그녀를 위한 것이다. 놓치기 쉬운 대목이 바로 이것이다. 상처 입은 아내는 그 상처를 내려놓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부르지 않아도 그리로 돌아가며, 너무 이르게 선언된 용서는 지탱되지 않는 용서다. 값이 치러지는 것을 보는 일 — 눈에 보이게, 참을성 있게, 항변도 자기 연민도 없이 —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그 일을 곁에 내려놓고, 그것을 사이에 두지 않은 채 다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것이 값의 참된 구실이다. 그의 살갗의 일이라기보다,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의 일이다. 그는 그녀가 그리할 수 있도록 바친다.

그러므로 값은 참되어야 한다. 아무것도 치르지 않는 결과는 아무것도 되살리지 못하며, 두 사람이 속으로는 연극인 줄 아는 몸짓으로 혼인은 고쳐지지 않는다. 그것은 재어지고, 합의되고, 「한계의 규정」 안에 매여야 한다 — 결코 즉흥이 아니며, 결코 노여움 속에서 가해지지 않는다 —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서는, 참으로 값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침과 연기의 다름이다.

四 두 번째 배약 — 진단

두 번째 배약은 전혀 다른 생물이며, 첫 번째의 되풀이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한 번은 실패다. 두 번은 정보다. 두 번째 배약 앞에서 부부의 첫 의무는 바로잡음이 아니라 깨어 물음이며, 그 깨어 물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살핀다.

숨김없이, 함께 물으라. 청산이 그에게 닿지 못하였는가 — 속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통행료로 건디여졌을 뿐인가. 그의 안의 무엇이 끝내 참으로 내어지지 않아, 이 서약은 온전히 들어오지 않은 남자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 혼인에 채워지지 않은 것, 말하여지지 않은 것이 있어, 그는 그것을 여기서 이름하는 대신 다른 곳에서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 「규례」가 이미 그녀 스스로에게 물기를 요구하는 그 물음이 거니와 — 안주인의 살림이 느슨해져, 그 흘러감은 보려는 눈에는 보였던 것인가. 이 집에서 되짚음은 양쪽을 벤다. 여기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것이 두 번째 실패의 조용한 쓸모다. 이미 잘못되어 있었으나 다만 보이지 않았던 것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것이다. 배신은 병이 아니다. 마침내 들릴 만큼 커진 증상이다.

五 두 갈래 길

진단으로부터 두 갈래 길이 난다. 첫째는 고삐를 죄는 길이다. 그 까닭이 틈, 흘러감, 살림의 게으름이었다면 답은 짜임이다 — 여지는 줄이고, 보이는 것은 늘리고, 줄은 짧게, 일과는 엄하게, 안주인의 살림은 새롭게. 두 번째 배약의 대부분은 이 길에서 끝나며, 잘 끝난다. 다만 진단한 뒤에 죄라. 진단 대신 죄어서는 안 된다. 채워지지 않은 필요 위에 당겨진 고삐는 그것을 풀지 못하고, 다만 더 깊이 묻으며, 더 잘 숨기

는 법을 그에게 가르칠 뿐이다.

둘째는 결단의 길이다. 진단이, 이 서약이 끝내 저를 참으로 내어 준 적 없는 남자를, 혹은 그녀의 권위를 속으로 업신여기는 남자를 다스리고 있음을 밝힌다면, 「규정」 안의 어떤 도구도 그 모자람을 채우지 못하며, 청산을 거듭한들 그것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그때 정직한 행위는 또 한 번의 처분이 아니라 혼인 그 자체에 대한 결단이다 — 서약서가 모든 끝맺음에 요구하는 그대로. 깊이 헤아려, 맑은 정신으로, 함께, 그리고 결코 노여움 속에서가 아니게.

六 그 도구에 관하여

값 그 자체에 관하여, 특히 뺨기풀에 관하여 한마디 하여 둔다. 이 집이 그런 시간을 위하여 따로 두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벼운 것이 아님은 분명히 말하여야 한다. 한때 약으로 쓰이던 것 — 옛 의원들은 식은 살에 열을 되불러들이려 허리에 뺨기풀을 엮었다 — 이 여가서는 결과로 쓰이며, 사람을 되살린다고 여겨졌던 그 같은 불이 하루 혹은 그 이상, 그가 저지른 일의 값으로 느껴진다. 그 무거움은 한순간이 아니라 이어짐에 실려 있다. 그것은 그를 따라 여느 시간 속으로, 이튿날 아침 속으로, 이 서약의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 방들 속으로 들어간다. 바로 그렇기에 그것은 신뢰의 배약에 속하며, 그보다 가벼운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그것은 거의 결코 쓰이지 않아야 한다. 가장 무거운 실패를 위하여 따로 둔 도구는, 손대어지지 않은 채 놓여 있는 세월에야말로 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집이 그것을 두는 것은 쓸 일을 내다보아서가 아니라, 이 특정한 파멸의 값이 참되고, 이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음을 두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밭 가의 울타리요, 쟁기가 아니다.

七 밝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리고 어쩌면 이 글이 있는 가장 참된 까닭이다. 깨어지는 혼인의 대부분은 답 속에서 끝나지 않는다. 안개 속에서 끝난다 —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하지 못하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사스럽고 아마도 정확하지 않은 셈을 각자 품은 채, 그 뒤로 몇 해고 무엇이 부러졌던가를 헤아린다. 이 서약은 살아남음보다 나은 것을 내어 준다. 그리고 일이 어느 쪽으로 가든 그것을 내어 준다. 답이다.

혼인이 지탱된다면, 두 사람은 그것이 왜 지탱되었는지, 무엇을 치렀는지, 무엇이 다시 세워졌는지를 정확히 알 것이다. 끝난다면, 그것 또한 알 것이다 —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바쳐졌고, 무엇이 밝혀졌고, 무엇이 결단되었는지를. 어느 쪽도 다음 십 년을 짐작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모호함이야말로 혼인을 죽이는 것이라는 주장을 주춧돌로 삼는 틀에게, 밝게 끝나는 것은 제도의 실패가 아니다. 마지막까지 일하는, 제도 그 자체다.

한 번은 실패다. 두 번은 정보다. 둘 다 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지침일 뿐이다. 열여덟 살 이상의, 합의한 성인을 위한 것. 모든 것은 「한계의 규정」과 정지 신호에 복종한다.